

시중은행들 ‘ESG채권’ 발행 러시

시중은행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 발행을 늘리며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다.

ESG 채권은 환경, 사회적 사업, 지속가능성 등 ESG 목적에 한정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으로 인해 자금조달이 필요한 은행권에 제격이라는 평가다.

일반 회사채보다 낮은 금리 장점
자금조달 부담↓…이미지제고 효과
친환경+사회적 ‘지속가능채권’ 늘어

●ESG 채권, 종류도 다양해

ESG 채권은 다양한 구성이 특징이다. 먼저 국내 기관 투자자를 겨냥한 원화 채권이 눈에 띈다. KB국민은행은 2월 26일 5000억 원 규모의 원화 지속가능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권)을 발행한 데 이어, 3월 17일 1000억 원 규모의 원화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또 IBK기업은행은 2월 17일 1조 500억 원 규모의 원화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발행했다. 국내 은행에서 발행한 ESG채권 중 최대 규모이고, ESG 인증등급 제도를 도입해 한국신용평가로부터 사회적채권 중 최고 등급인 ‘SB1’ 등급을 받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외국 투자자들의 한국물 채권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며 외화 채권도 주목받고 있다. 하나은행은 1월 20일 5억 유로(6600억 원) 규모의 중장기 외화 채권을 발행했다. ESG경영 강



2021년 시중은행 ESG채권 발행 현황

은행명	ESG채권명	규모
KB국민은행	원화 지속가능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권)	5000억 원
KB국민은행	원화 녹색채권	1000억 원
IBK기업은행	원화 중소기업금융채권(사회적)	1조5000억 원
하나은행	중장기 외화 채권(사회적)	5억 유로(6600억 원)
우리은행	외화 ESG 선순위 채권(지속가능)	5억5000만 달러(6200억 원)

은행권이 ESG 채권을 통해 자금 조달은 물론 ESG 경영 강화라는 이미지 증대 효과를 누리고 있다. 사진은 올해 ESG 채권을 발행한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사옥(왼쪽부터).

사진제공 | KB국민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

화 차원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채권 형태로 발행한 것이 특징이다. 우리은행도 1월 26일 5억5000만 달러(6200억 원) 규모의 외화 ESG 선순위채권을 발행했다. 지속가능 ESG채권으로 조달자금은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과 한국판 뉴딜 정책에 발맞춘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에 사용된다.

종류별로는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으로 구분된다. 이중 지속가능채권이 늘고 있다. 녹색채권과 사회적채권은 각각 친환경, 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 등으로 목적이 나뉘는 것과 달리 지속가능채권은 환경 친화적이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모두에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분석된다.

●은행권이 ESG 채권을 발행하는 이유

그렇다면 은행권이 앞 다퉈 ESG 채권을 발행하는 이유는 뭘까. ESG가 국내·외 기관투자자와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주요 요인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국내 기관투자자의 대표격인 국민연금도 2022년까지 전체 운용자산의 50%를 ESG 기업에 투자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주식과 채권 위탁운용사 선정 시에도 ESG 투자 현황을 중요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 예다.

글로벌 기관투자자와 자산운용사 역시 전체 채권 매입량 중 ESG 채권의 비중을 정해놓거나,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기업은 포트폴리오 비중

을 확대하고 평균을 밀도는 기업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ESG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일반 회사채보다 낮은 금리로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것이 매력포인트라는 게 은행 측 설명이다. 여기에 한국거래소가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3년 간 ESG 채권에 대한 신규 상장수수료와 연부과금을 면제해주면서 발행기관의 자금조달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즉 은행 입장에서는 ESG 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을 통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채우고 싶고, ESG 경영 강화라는 이미지 증대 효과까지 동시에 낼 수 있는 셈이다. 은행 관계자는 “ESG 채권의 경우 민간의 자율 규제를 지켜 발행해야하는 것은 물론 사후 사용 내역 보고와 공시 의무 등 추가적인 절차도 있어 복잡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글로벌 투자 트렌드이자 금융권의 경영 화두인 ESG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는 동시에 자금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정욱 기자 jiyajdonga.com

■ ESG 채권은? 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 등 사회적 책임투자를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이다. 크게 친환경 사업분야에 활용되는 녹색 채권(Green Bond), 사회문제 해결에 사용되는 사회적채권(Social Bond), 그리고 앞선 두 가지 목적을 함께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 채권(Sustainability Bond) 등으로 구분된다.



더현대 서울 지하 2층에서 운영하는 ‘NH슈퍼스톡마켓’ 팝업스토어.

사진제공 | NH투자증권

함께 ‘삼성전자 주식 증정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인터파크에서 삼성전자 휴대폰과 노트북을 구매한 SK증권 고객에게 삼성전자 주식을 제공했다. SK증권 측은 “일상 소비생활에서 자연스레 해당 기업의 주주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했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2030 MZ세대 ‘주린이’ 잡아라!”…유통가와 손잡는 증권사

NH투자, 6주간 슈퍼스톡마켓 운영
미래에셋, 티몬과 계좌 개설 이벤트

증권업계가 유통가와 손잡고 최근 주식 시장에 급격히 유입되고 있는 2030 MZ세대(밀레니얼세대+Z세대) ‘주린이(주식+어린이)’ 잡기에 나섰다.

2030 MZ세대가 즐겨찾는 이커머스와 백화점 등을 통해 보다 친숙한 방법으로 신규고객을 유치하려는 전략이다. 또 증권사의 보수적이고 딱딱한 이미지를 벗으려는 움직임도 숨어있다.

NH투자증권은 5월 9일까지 서울 여의

도 더현대 서울 지하 2층에서 ‘NH슈퍼스톡마켓’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입장과 동시에 모의투자 전용 앱이 설치된 휴대폰을 제공한다. 전시된 종목명 옆에 비치된 NFC카드를 태그해 시드머니 1억 원 이내로 모의투자를 완료하면 된다. 응모 완료한 고객 전원에게 예코백을 증정하며, 주간 수익을 상위 고객 대상으로 6주간 총 60명을 선정해 현대백화점 10만 원 상품권을 제공한다.

또 전시 종목에 대한 개별적인 상담을 원하는 고객은 별도로 마련한 화상상담부스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경호 NH투자증권 WM사업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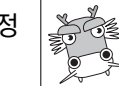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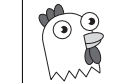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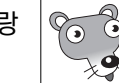
표는 “증권사가 고객을 만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싶었다”며 “주식 투자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친숙하면서도 접근하기 쉬운 문화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미래에셋증권은 15일까지 티몬과 함께 ‘비대면 계좌 개설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미래에셋증권의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 신규 고객 전원에게 티몬 적립금 1만 원을 지급한다. 신규 고객이 해당 계좌로 1만 원 이상 국내 및 해외 주식을 거래하면 티몬 적립금 1만5000원을 추가로 제공해 최대 2만5000원의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SK증권은 최근 인터파크와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4월 6일(화) 음력: 2월 25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뽀롱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소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호랑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토끼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용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시시한 일들로 인해 해방을 받아 뜻대로 되지 않는다. 자금난에 봉착한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시련의 때아말로 인가의 참된 가치가 나타난다. 서두르면 곤란한 야기시킨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상대의 입장을 먼저 살펴 보아라.		무슨 일에 있어서나 의견상의 화려하고 성대한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신중해야 한다. 물질이나 금전적으로 충분치 못한 데도 호화롭고 사치스런 생활을 바라는 욕망이 강할 때이다. 겸소한 생활을 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주위가 불안하고 근심 걱정도 많은 때이다. 처음은 곤란하지만 우물쭈물 말바닥은 흐려도 위 일수록 맑아질 시일이 지날수록 점차 좋아지게 된다. 지출이 심하니 잘 조절하라. 취업 운은 좋은 날이다.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는 날이다.		평화로운 생활을 하던 사람이 안이한 생활에 젖어 물질적으로 파탄이 오거나 정신적으로 퇴폐하기 쉽다. 하지만 부패와 혼란의 시기는 동시에 혁신, 신생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이때를 삼기일전의 기회로 삼아라. 돼지피와의 거래에서 신중하라.		어떠한 위험이나 장애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하늘의 기운을 크게 모아 조목을 양육하는 산을 나타내는 운기이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해 충실한 방침을 세우고 착수할 때이다. 시들었던 화초가 비를 만나는 날이다.		사방이 위험으로 막혀있다. 함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기 몸을 돌아보고 인격을 연마하며 위험한 시기를 넘겨야 한다. 시기가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에 모험을 피해야 하며 내부의 정리에 힘써야 할 때이다. 경제적 고통도 따른다.	
	말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양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원숭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닭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돼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샘에서 흐르는 물줄기는 가냘프고 의지할 것이 못되나 나중에 강이 될 수도 있다. 다만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올바르게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등고 답답하며 고뇌 속에 머물러 있는 때이니 경계방동을 삼가 하라.		괴로움이 크겠지만 마음을 굳게 가지고 있으면 이로움이 있다. 현재는 재능과 능력을 인정받기 힘들고 입장이 험악하지 못하다. 고난 속에서 연마된 실력은 마침내 욕으로 빛나게 될 것이다. 바라지 말고 분수에 맞는 일만 하라.		몸과 마음이 굳어져서도 위험이 앞에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자중해야 한다. 때를 기다리지 않고 강에 뛰어드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망용이다. 힘을 기르면서 기다리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주장을 좀 꺾고 상대방과 화해하라.		결단력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대로 결행함이 필요한 때다. 금전적인 여건도 발전하니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밀고 나가는 행동력이 있어야 된다. 책임 있는 자세와 확고한 자기 노력이 뜻을 실현시킨다. 분쟁이 있다면 이쪽이 유리해진다.		강인한 정신력으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필요로 한다. 주위의 인정이나 판단을 의식하여 자신의 주관을 잃으면 고통을 맛보기 쉬울 때이다. 과감성을 갖고 행동에 임하면 명예는 한층 더 돋보일 수 있다. 최후까지 노력하면 달성된다.		문서에 따르는 변화에서 명예가 따르나 과욕을 부리면 도리어 구실이 뒤따르는 경향이 있다. 명예, 문서적인 측면에 신중을 기하여 결여된 부분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 처음은 불안하다. 노력을 하여라.	

신한銀 ‘2021 프로야구 적금·예금’ 출시

적금 최대 연2.4%…정규시즌 종료일까지 가입 가능



KBO리그 타이를 스폰서인 신한은행이 ‘2021 신한 프로야구 적금 및 정기예금’(사진)을 내놓았다.

프로야구 10개 구단 중 고객이 응원하는 구단을 선택해 가입하는 1년제 상품으로 정규시즌 종료일까지 가입 가능하다. 적금은 월 1000원부터 5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기본이자율은 연 1.0%이며 우대금리 1.4%포인트를 제공해 최대 연 2.4% 금리를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조기가입 보너스 우대금리 연 0.2%포인트, 고객이 선택한 구단의 성적에 따른 우대금리 최대 연 1.2%포인트다.

정기예금은 300만 원(비대면 50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기본이자율은 연 0.9%에 고객 선택 구단이 한국시리즈에서 우승 시 우대금리 연 0.15%포인트를 더해 최대 연 1.05%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야구팬들이 신한은행하면 프로야구라는 키워드를 연상할 수 있게끔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롯데카드 ‘LOCA 패널’ 비대면 발대식 개최

롯데카드가 최근 ‘LOCA(로카) 패널’ 비대면 발대식을 개최했다. 고객이 직접 상품과 서비스 등을 체험한 뒤 개선사항을 제안해 실제 경영에 반영하는 제도다. LOC A패널은 20~60대 롯데카드 회원 12명으로 구성했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금융소외계층 패널도 함께 선발했다. 12월까지 롯데카드 상품과 서비스를 체험한 후, 연 4회 진행되는 정기 간담회와 온라인 간담회, 설문조사를 통해 개선사항을 제안할 예정이다. 민병욱 롯데카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LOCA패널이 제안한 개선안과 아이디어를 적극 검토해 실제 업무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카카오뱅크, 카톡 상담 24시간으로 확대 운영

카카오뱅크가 카카오톡 고객 상담채널을 24시간 운영한다. 기존 상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였지만 365일 24시간으로 확대된다. 상담채널은 전화상담, 챗봇상담, 카톡상담, 일대일상담(이메일) 등 총 4가지다. 카카오뱅크 이용자 53%는 전화가 아닌 카톡, 챗봇, 이메일 채널로 궁금한 점을 해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상담은 고객 데이터분석을 거쳐 상담 시간을 개편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다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변경된다. 전화상담이 평일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했다.

오늘의 날씨				6일(화)			
서울	20/20	인천	20/20	춘천	20/20	강릉	20/20
8 15		8 19		6 20		8 21	
대전	20/0	전주	20/0	광주	20/0	부산	0/0
5 20		6 19		7 20		8 18	
대구	20/0	부안	0/0	창원	0/0	제주	20/0
5 20		8 18		6 20		10 16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최저	최고	날씨	최고기온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551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세호	사업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숙옥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성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월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	